

카뮈를 둘러싼 신화와 전설의 허위를 벗겨내는 의미 있는 시도



《카뮈를 위한 변명》 박홍규 지음/우물어있는집/288쪽/값 8,800원



《카뮈를 위한 변명》에서의 '변명'은 카뮈에 대한 옹호와 변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외려 신화와 전설 속에서 과부하가 걸린 카뮈의 왜곡된 이미지를 원래의 본질적인 자리에 되살려놓는 작업을 가리킨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 작업을 문학연구가도, 불문학자도 아닌 진보적 법학자가 시도했다는 사실이다. 영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박홍규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듯 저 역시 사춘기 시절에 문학을 접하면서 카뮈도 알았고, 지금까지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카뮈에 대한 애증이 생겼습니다. 즉, 식민주의자로서의 카뮈에 대한 실망과 함께 진정한 자유인 카뮈에 대한 사랑이었지요. 나이가 들면서 저 자신이 모순된 존재임을 자각하면서 카뮈의 삶이나 사상이 모순 그 자체로 이해되었습니다. 그 모순의 매력을 구명해 보고 싶었어요.”

《카뮈를 위한 변명》에서 박 교수는 카뮈에 대한 한국 독자들의 폭넓은 향유와는 별개로 그가 여전히 소극적이고 편협하게 해석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예술

가로서의 카뮈는 널리 소개되었지만 행동하는 반항인으로서, 레지스탕스로서, 프랑스 권력에 반항한 작가로서, 비록 알제리 독립을 바라지는 않았지만 평화를 위해 투쟁한 사람으로서의 그의 진면목은 가려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를 박 교수는 서양의 오리엔탈리즘과 동양의 옥시덴탈리즘(서구숭배사상)의 절묘한 결합이 빚은 한국의 특수한 정황과 이를 방조한 문학수입상들의 조작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서양문화 수입이란 대단히 시대적이고 피상적이며 관념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국가주의가 강하여 자유, 자치, 자연이 무시되는 곳이 없어요. 카뮈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던지는 작가인데, 우리 스스로 그런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카뮈를 한갓 위대한 서양문학으로서만 받아들였어요.”

그의 지적처럼 일반적으로 카뮈는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실존주의자, 부조리 문학의 기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정도로만 이해된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들은 카뮈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 하나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 박 교수는 카뮈를 알기 위한 전제로 실존주의를 둘러싼 프랑스문화와 사회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실존의 고독과 불안이 인간의 다양성을 긍정하고 그것을 억압하는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된 적이 있었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방인》은 사실 카뮈 자신은 부정의 문학으로 보는데, 우리에게서는 긍정의

문학으로 미화되었어요. 또한 카뮈는 처음부터 끝까지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일관했는데 그가 표현한 부조리는 허무주의의 수사처럼 비쳤습니다. 그리고 카뮈의 치명적인 결함 중 하나인 식민주의는 전혀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요컨대 카뮈의 현저한 사회적 성격이 우리에게 카뮈의 이미지로 형성되지 못한 거지요.”

화석처럼 굳어진 문학 아이콘인 카뮈에 대해서 대단히 흥미로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박홍규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르네상스적인 지식인으로 통한다. 전공은 법학이지만 그의 관심은 철학, 예술, 인문 등에 두루 걸쳐 있다. 최근엔 카프카와 조지 오웰의 평전을 펴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폭넓은 학문적 관심을 이렇게 표현한다.

“저에게는 자유로운 개인, 자치하는 사회,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법학만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예술이나 사상에서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술이나 사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 그런 믿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취재 김도연 기자

